

2
2026
FEBRUARY
Vol. 438

안전 보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작은 실천

안전보건

2026 FEBRUARY Vol. 438

안전보건공단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_ 등록_출판증_라100811989_04_251_제18종_우편물_납입인기(90.11.28)_제_38권_2호_통권_438호 _ISSN_2288-1611_2026.2.1_매월_1일_발행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youtube.com/@koshamovie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blog.naver.com/koshablog

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facebook.com/KOSHAnet

안전보건공단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kosha

안전보건공단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osha.angel

안전보건공단 X(구.트위터)
[X.com/KOSHAnet](https://x.com/KOSHAnet)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착용



<안전보건> 구독 신청
월간 <안전보건> 구독을 원하는 사업장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해주세요.

안전 보건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김현중 이사장
편집위원장	안전문화홍보실 원진성 실장
외부위원	한국산업보건학회 김승원 편집이사 한국안전학회 옥승용 편집이사 동양대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김상현 교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이영화 교수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김광일 본부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교육원 유정서 전임교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김동운 부장 김·장 법률사무소 김병규 전문위원 젠더십향상교육원 우명순 센터장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직업건강협회 정미경 교육센터장 CJENM 안전관리팀 고경환 팀장
내부위원	ESG경영성과실 성과평가부 이동훈 부장 산업안전실 안전체계지원부 고인수 부장 중소기업지원실 재정사업부 이준근 부장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문현근 부장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 강철운 부장 전문기술실 화학사고예방부 이태형 부장 중앙사고조사단 과학사고조사부 김정덕 부장 교육총괄실 교육콘텐츠부 최승근 부장 교육총괄실 외국인협력팀 김태일 팀장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부 최원창 부장 안전보건평가실 등급심사평가부 권준혁 부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 고인희 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이상근 교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보호구인증부 오승현 부장
담당	김정상 팀장, 박세빈 대리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기획·디자인	필드가이드 02.6375.2665
인쇄	명일인쇄
홈페이지	www.kosha.or.kr

2 2026
FEBRUARY
Vol. 438

CONTENTS

Cover Story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생명을 지킨다” **04**

Workplace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아진산업 “안전으로 101년 기업을 짓다” **08**

일터 이야기
한솔로지스틱스 “안전으로 한국 경제 대동맥 잇는다” **14**

안전문화 이야기
스타필드 수원 “일상 공간을 안전 체험장으로” **20**

궁금한 일터
“맥주에 이야기를 입히는 곳, 정동독립맥주 양조장” **24**

Culture

Color : 색으로 산재를 잡자
“안전은 ‘CUD 시스템’ 설계로 완성된다” **32**

Note
“안전 경영을 위한 법칙” **36**

People
“공단을 대표하는 얼굴, AI 휴먼 ‘세은·세아’” **38**

Knowledge

전문가 시선
데이터가 주도하는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42**

일터에서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작업 시 올바른 ‘안전모’ 착용 **44**
작업 시 올바른 ‘안전대’ 착용 **45**

외국인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 정보
‘적재·상하차’ 안전작업 가이드 **46**
벌목작업 재해 예방 5대 안전수칙 **47**

산업재해 통계 및 사례
‘제조업’ 사고사망자 통계 **48**
‘건설업’ 사고사망자 통계 **50**

Information

중대재해처벌법
중소 시공사에 지원진 ‘안전의 무게’ **52**

제철 음식 이야기
바다의 우유, 굴 **54**

국내·국제 소식 **58**

나에게 맞는 이달의 힐링 장소 **59**

COVER STORY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작은 실천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착용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생명을 지킨다”

글. 권원호 차장_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

3대 기초 안전수칙을 현장에서 지켜야 하는 이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왜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답은 이미 알고 있던 것에서 나온다. 물론 시설·장비·기계·구조상 결함 등 물리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안전대를 걸지 않았으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게 공통적인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매년 ‘3대 기초 안전수칙’, 즉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착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너무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기초 안전수칙은 여전히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가장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3대 기초 안전수칙은 일시적인 캠페인이나 구호가 아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의무이며,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

3대 기초 안전수칙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다. 추락, 낙하, 전도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고, 작업 중 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보호구 지급·착용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 내용과 위험 요인에 따라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등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을 명시하고 있다. 낙하·비레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를, 고소작업이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대를, 지게차 등 차량계 장비를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한다.



즉 사업주의 역할은 보호구를 단순히 '비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작업 특성과 위험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실제로 착용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구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도 분명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하는 기본적인 책임이다.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오간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지금까지 문제없었잖아.”

그러나 사고 조사 기록에서도 이 말들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 보호구는 사고를 완전히 없애는 장비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 마지막 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최소한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에게도 분명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해외 산업현장이 보여주는 공통된 기준

이러한 원칙은 우리나라만의 기준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산업안전 선진국을 역시 가장 기본적인 보호구 착용을 안전관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고소작업 중 추락방지기구 미착용이나 지게차 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간주한다. 특히 “노동자가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의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묻는다.

영국은 보호구 착용을 단순한 규정 준수가 아니라 ‘현장의 기본 태도’로 관리한다. 현장 리더는 작업 전 보호구 착용 여부를 가장 기본적인 점검 항목으로 확인하며, 반복적인 미착용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관리 방식의 문제로 접근한다.

일본 역시 작업 효율이나 숙련도를 이유로 기초 안전을 양보하지 않는다. 작업 전 안전회의를 통해 보호구 착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왜 착용하지 않았는가’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는 점이다.



사고의 원인을 모두 없앨 수는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사고는 대부분 시설·장비의 결함, 가시설의 구조적 불량, 작업 방법의 문제, 현장 여건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이 겹쳐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오류와 결함, 불량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줄이고, 설비를 개선하며, 작업 방법을 표준화하는 노력은 산업안전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와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최악의 상황, 즉 안전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다.

‘피해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가?’

3대 기초 안전수칙은 ‘최악의 순간’을 대비하는 마지막 장치다

2021년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노동자는 6층 높이에서 추락했으나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반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또 다른 노동자는 추락 후 사망했다. 이 사례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가 곧 생사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는 안전사고의 근원적 해결책도 아니고, 모든 사고를 막아주는 만능 장비도 아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예를 들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던 중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작업자가 실족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사업주가 안전대를 제대로 지급하고, 노동자가 그 안전대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있었다면 낮은 곳으로의 추락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낙하물이나 비래물로 인한 사고 상황에서도 안전모 착용만으로 치명적인 두부 손상을 막아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차량계 장비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처럼 3대 기초 안전수칙은 사고를 ‘없애는 장치’라기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마지막 안전망이자 가장 중요한 키(key)다.

정부 정책도 ‘기본 실천’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3대 기초 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착용) 준수를 산업안전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감독·점검 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필수 확인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도 정부와 협력해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현장의 일상적인 안전 실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중대재해 감축의 핵심은 ‘함께 지키는 실천’이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주는 보호구를 충분히 지급하고, 착용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는 보호구를 형식적인 장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치로 인식하고 착용해야 한다. 노사가 함께 기본을 지키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3대 기초 안전수칙은 문서 속 문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사고는 줄어든다. 3대 기초 안전수칙은 현장을 느리게 만드는 규칙이 아니라, 사고를 멈추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안전모 하나, 안전대 하나, 안전벨트 하나가 오늘도 누군가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안전모·안전대·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확실한 예방 조치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기본을 지키는 안전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분명히 줄어든다.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품질은 최고, 안전은 철저히 미래를 향해 질주한다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영상. 워크하드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아진산업 편

지난 1월 12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아진산업 공장은 추위가 무색할 만큼 열기로 뜨거웠다. 육중한 프레스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거대한 강철판은 대시, 도어, 트렁크 등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 탈바꿈했다. 이곳에서 조립과 정밀 공정을 마친 제품들은 현대차 생산 라인으로 인도된다.

1978년 설립된 아진산업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함께해 온 부품 전문기업이다. 현대차·기아의 1차 협력사로 자동차 차체와 차량용 전장 부품을 연구·개발·생산한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 발맞춰 전기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친환경차를 위한 부품 경량화 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진산업의 경쟁력은 비단 기술력만이 아니다. 최근 회사는 안전 분야에서도 성과를 증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조 및 기타 업종 분야 본선에서 대상을 거머쥔 것이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확고한 경영 원칙 아래 전 임직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 결과다. 생산 경쟁력에 안전 경쟁력까지 더하며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고 있는 아진산업 경산공장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 페이지는 노동자, 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들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이해와 존중으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응원 공간이다.



기술 경쟁력, 생산 경쟁력,
안전 경쟁력!
현장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사고 없는 현장,
제 손으로
직접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안전이
내일의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안전으로
최고의 기술을
완성할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더 안전한
아진산업을 만듭니다.

타협하는 안전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오늘이
내일을 만듭니다.

저력은 안전에서 시작됩니다.
안전 경쟁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식에게 권할 수 있는 일터

안전으로 101년 기업을 짓다

“한 세기를 넘어 이어질 기업을 목표로,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아진산업 직원들은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공장 출입문(안전교육장)’이라고 적힌 파란색 문을 통과한다. 출입문엔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공장 보행 시 안전통로 이용’ 등 안전수칙도 빼곡히 적혀 있다. 이 문은 단순히 공장을 드나드는 통로가 아니다. 모든 직원은 출근하는 순간부터 안전수칙을 마음에 새기고 안전을 생활화하겠다는 다짐을 일깨운다. 한 세기를 넘어 이어질 기업을 목표로,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CEO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 위험성평가

공장의 출입문을 안전교육장으로 명명했을 정도로 아진산업에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원칙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경영진의 확고한 철학에서 비롯됐다. 서중호 대표는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며, 모든 경영활동에 앞선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늘 말한다.

안전에 대한 그의 진정성은 위험성평가를 직접 주도하는 데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전 직원에게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사소한 의견이라도 100% 개선하라. 의견을 냈을 때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라” “위험성을 말한 부서에 개선 업무를 떠넘겨 부담을 주지 마라” “위험요인 발굴 시 반드시 노동자 면담과 설문조사를 포함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통상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의 구체적인 위험성평가 원칙까지 직접 챙겼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서 대표는 “경영자의 굳은 의지와 적극적인 투자는 안전한 사업장의 근간이자 시작점”이라며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CEO의 적극적인 안전 리더십 아래 아진산업의 위험성평가는 현장 중심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구성원의 참여가 늘었고, 이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으로 이어졌다. 변화는 외부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아진산업은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본선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정 멈추고 집중! '위험성평가 Day'

아진산업은 '안전점검-안전회의-결과 공유'로 이어지는 3단계 프로세스를 일간, 주간, 월간, 분기 단위로 정례화한 상시 위험성평가를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는 현장 작업자부터 대표이사까지 모든 구성원이 예외 없이 참여한다.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안전보건팀은 매일 현장 일일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노동자들은 스마트폰 QR코드를 활용해 발견한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제보한다. 월 단위로는 공장장이 선정한 '테마'에 집중하는 테마안전 점검을 수행하고, 분기별로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안전경영점검으로 전사적인 안전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듯 촘촘한 관리를 통해 발굴된 위험 요인은 공장장 주관 주간안전회의, 매월 열리는 노사 정기안전회의, 그리고 분기별 대표이사 주관 안전경영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도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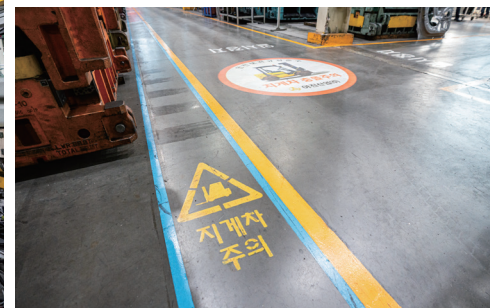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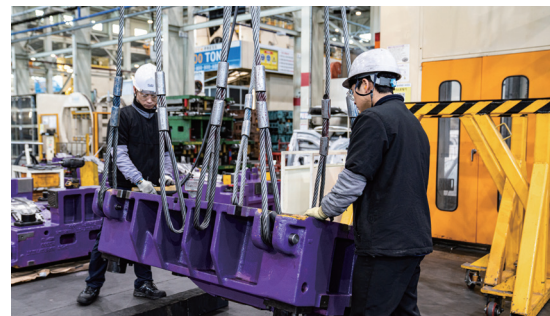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결과를 전사에 전파하는 과정 또한 체계적이다. 매일 작업 전 TBM으로 현장의 안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유해·위험 요인 게시판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전달한다. 이에 더해 분기별 안전 경영 전파 교육과 인트라넷 안전 퀴즈를 병행하며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기계·설비를 설치·변경하거나, 고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 수시위험성평가를 병행하여 새로운 위험 요인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빈틈없는 상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아진산업은 한순간의 안전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아진산업의 위험성평가와 관련해 특히 주목받는 것은 '위험성평가 Day'라는 특별한 제도다. 위험성평가 기간 중 매일 1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아예 중단해버리는 것이다. 전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온전히 집중하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공장을 멈춘다는 건 회사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만큼, 아진산업이 위험성평가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아진산업이 꿈꾸는 미래는 ‘나의 자녀가 대를 이어 일하고 싶은 기업’이다. 자식에게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일터라는 목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재해 예방 3대 중점 관리 항목' 지정

아진산업은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 요인을 '재해 예방 3대 중점 관리 항목'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산업용 로봇, 프레스, 지게차가 그것이다.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안전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조립 라인의 산업용 로봇은 자동화 공정의 핵심이지만, 설비 오류 복구 과정에서 끼임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로봇 용접 팁 교환 후 라인 내부에 진입한 작업자를 인지하지 못한 채 설비를 조작하여 발생하는 끼임 사고 사례가 보고됐고, 에너지 차단 장치(LOTO) 미준수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아진산업은 이러한 인적 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공정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프레스 라인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금형 내부 진입 시 안전블록 미체결이나 LOTO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아차사고는 언제든지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진산업은 작업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레스 공정의 위험 요인을 밀착 관리한다. 지게차 운행에 따른 충돌 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는 빈번한 위험 요소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



HDS 등 첨단기술 도입해 인적 오류 원천 차단

이러한 노력은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다양한 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AI 기반의 '제조 공정 안전 관리 시스템(HDS)' 구축이 있다. HDS는 고도화된 영상 분석 AI를 통해 작업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이 포착되는 즉시 설비 작동을 통제해 인적 오류를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2024년 현대차그룹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주요 공정을 넘어 전 차종 범용 장비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또 지게차에는 AI 카메라 감지 센서를 장착해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P/J 용접 공정에는 AI 인식 카메라(PWS)를 활용한 끼임 사고 예방 시스템도 도입했다. 특히 위험점에 작업자의 손이 인식되는 경우 풋스위치를 밟아도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Fool Proof' 시스템은 찰나의 실수가 큰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용 로봇 셀 내부에 작업자가 진입하면 주변 동료들이 작업 중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돕는 안전도어 LED 센서를 설치했고, 떨어짐 사고 위험이 높은 수직 사다리를 계단으로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공장 내 운행 차량의 속도를 AI 카메라로 모니터링해 과속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조회 후 제재를 가하는 등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술과 사람, 철학이 공존하는 안전 경영

아진산업은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선 AI 안전 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 사고로 번지지 않는 지능형 작업 환경을 완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에도 본사의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낌없이 지원하여, 함께 안전하게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장에 안전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도 구성원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아진산업은 모든 임직원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실천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진산업이 꿈꾸는 미래는 '나의 자녀가 대를 이어 일하고 싶은 기업'이다. 자식에게 기꺼이 추천할 수 있는 일터라는 목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거듭하고 그 결실을 직원과 나누며, 무엇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만이 대물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

아진산업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확고한 철학이 공존하는 안전 경영을 통해 이 비전을 달성하며 백년기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갈 것이다.

상하차장 내 부딪힘 사고 '0건'. 한솔로지스틱스가 2023년 레이더 기반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거둔 성과다. 이 시스템은 그린존(Green Zone, 대기장)과 레드존(Red Zone, 작업장)으로 엄격히 구분된 컨테이너 상하차장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장비와 인력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감지하고 관제한 결과, 시스템 도입 이후 상하차장 내 부딪힘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술을 통한 실시간 통제와 체계적인 관리가 실질적인 안전 성과로 연결된 것이다.

글. 홍난희

흐름은 막힘없이, 연결은 빈틈없이

안전으로 한국 경제 대동맥 잇는다

“상하차장 내 부딪힘 사고 '0건’. 2023년 레이더 기반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구축 이후 거둔 성과”

스마트 관제 시스템은 한솔로지스틱스의 위험성평가 과정을 통해 도입됐다. 위험을 발굴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위험성평가의 취지가 잘 반영된 사례다. 이와 같은 현장 맞춤형 기술 도입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성과로 한솔로지스틱스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5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제조업 및 기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전 세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 그 힘은 안전

한솔로지스틱스는 해상·항공 포워딩을 포함한 글로벌 물류 서비스는 물론 컨테이너, 트럭, 철도 운송과 창고 보관 및 분배(W&D), 물류 컨설팅 등 공급망 전 영역에 걸쳐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SCM)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물류 기업이다.

사업은 크게 네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잇는 네트워크와 산업별 특화 인력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물류 분야다. 운송부터 보관·통관에 이르는 통합 3PL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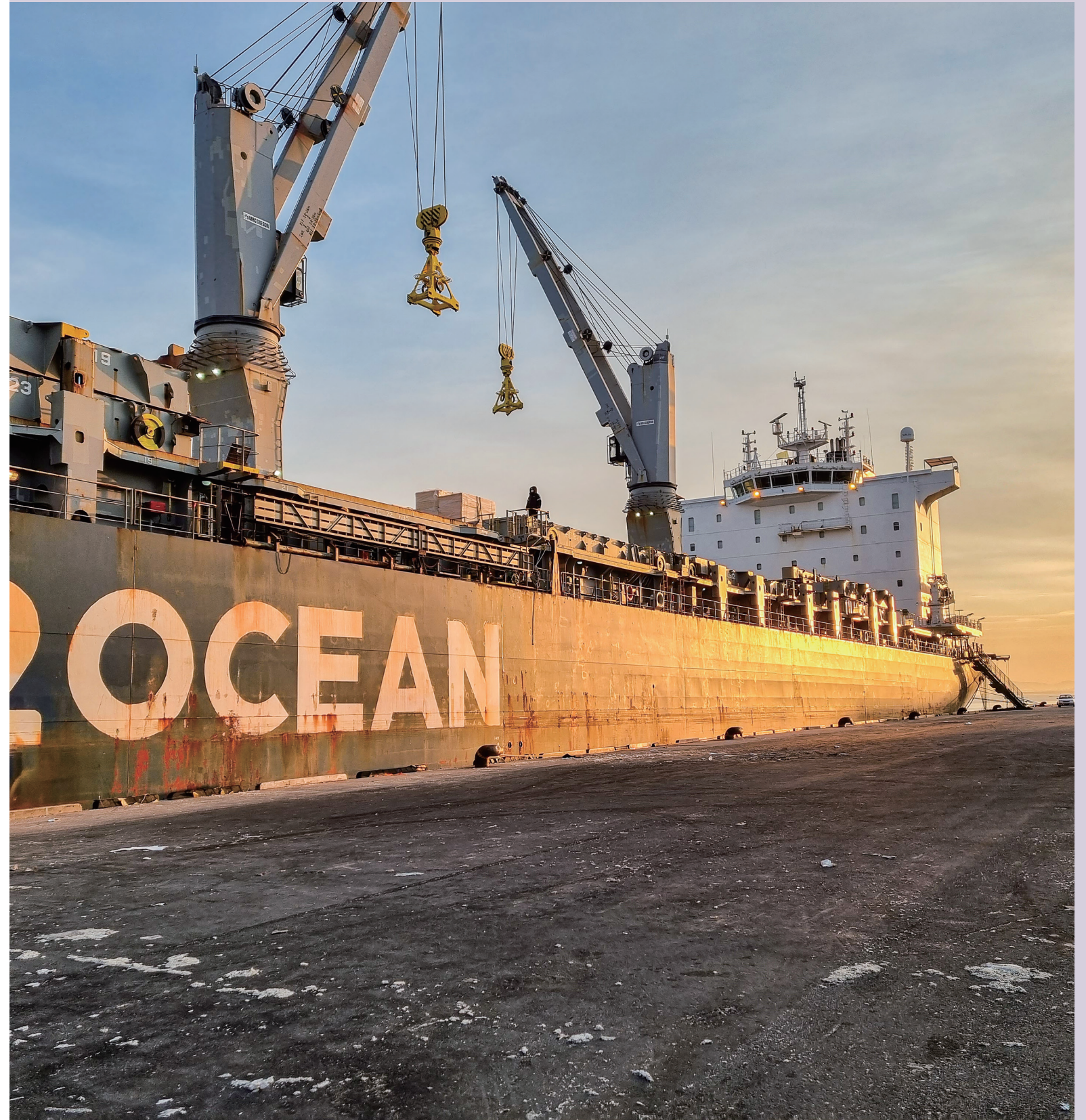
둘째, 트럭 운송은 디지털 기반의 직접 배차 및 차량 소싱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전국 단위의 물량을 바탕으로 운송 원가 절감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강점이다.

셋째, 정교한 사전 플래닝을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운송 분야로, 수출입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조절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

넷째, W&D 사업은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화물의 입출고, 보관, 유통 가공, 수배송 전 과정을 수행한다. 특히 고도화된 물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전 세계와 전국 각지를 잇는 방대한 물류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힘은 다름 아닌 현장의 안전이다.

일터 이야기



화물, 차량, 작업자 뒤섞인 물류 현장...엄격 관리 필수

광범위한 사업 영역만큼이나 복잡다단한 물류 현장은 무거운 화물과 차량, 작업자가 뒤섞이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한솔로지스틱스는 현장 위험 요인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딪힘과 깔림은 물류 현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재해다. 특히 창고 출입구나 야드(Yard) 내 횡단보도는 고위험 구간이다. 이에 한솔로지스틱스는 주행속도를 시속 10km로 엄격히 제한하고, 화물차 출입 시 '일단 정지'를 생활화하도록 했다. 지게차와 리치 스택커(R/S) 같은 하역 장비 역시 주요 관리 대상이다. 장비 운용 시에는 전·후방 시야 확보를 의무화하고, 작업장 내 '레드존'을 설정해 접근을 원천 봉쇄한다. 상차 작업 중에는 운전자가 안전한 대기실이나 운전석에 머물도록 규정해 장비와 사람 사이의 물리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높은 화물차 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떨어짐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화물에 덮개를 씌우는 복포 작업이나 결속 작업 시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은 필수다. 지상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권고하며,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화물의 '넘어짐' 방지를 위해 제품 적재 시 '3단 이하'라는 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 하중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역 담당자와 운전자가 적재 및 고정(소킹) 상태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는 한솔로지스틱스가 추구하는 꼼꼼한 안전관리의 단면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규정 속도 준수, 시야 확보, 보호구 착용, 교차 점검 등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은 '7대 핵심 규칙'으로 명문화해서 모두가 숙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실효성 있는 페널티 제도(Penalty Policy)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차 경고에 이어 2차 위반 시 7일간의 배차 정지, 3차 위반 시 '영구 출입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한다. 안전 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닌, 물류 현장에 출입하기 위한 필수 자격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또한 '사람'에 집중한 안전보건관리도 주목할 만하다. 사고 예방의 출발은 운전자의 건강이기에 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유무 등을 상시 확인해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차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제동장치와 속도제한장치 상태를 '양호', '불량'으로 엄격히 구분해 기록하는 '화물차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 변화 이끄는 '위험성평가 4단계 로드맵'

최우수상 수상으로 실효성을 인정받은 위험성평가는 한솔로지스틱스 안전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된 결과다. 회사 측은 위험성평가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모든 임직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경영진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직접 소통하는 SMT(Safety Management Tour)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경영진의 안전 철학을 현장에 전달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이다.

회사는 현장 작업자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참여형 안전 제안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모바일 기반의 간편 접수 채널을 가동해, 심리적·물리적 문턱 없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즉시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접수된 제안은 '현장 관리자 1차 검토 → 최고안전책임자(CSO) 및 전문팀의 2차 검토'로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했다. 이런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시간 피드백과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이 같은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의 결합을 통해 안전관리의 빈틈을 촘촘하게 메웠다.

특히 형식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솔로지스틱스는 '위험성평가 4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1단계는 모든 종사자가 참여해 위험 요인을 전수 발굴하고 문서화하는 '기획 및 도출'이다. 2단계는 노사 합동 점검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현장 검증'이다. 이어지는 3단계 '자문 및 리뷰'에서는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경영진의 투자 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마지막 4단계 '실행 및 관리'에서는 개선 결과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전사에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킨다.

실제로 이런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한솔로지스틱스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AI 모션감지 장치를 일괄 설치했고, 보행 구간과 장비 이동구간을 재설계했다. 또한 차량 복포 작업 중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 시설을 보강하고, 화물차량 안전점검 프로세스를 강력히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회사 측은 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이래 지게차 부딪힘 사고 0건, 차량 기사 떨어짐 사고 0건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 측은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경영진의 투자 의지와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맞물려 돌아가는 실행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현장 안착'을 최우수상 수상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경영진과 현장 작업자가 격의 없이 소통하며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 점,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이뤄낸 점이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으로 안전 역량 상향 평준화

현장 작업자부터 협력사까지 전 구성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상생안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우선 현장 안전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무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현장 작업 표준 매뉴얼과 '중대재해 사이렌' 교본을 활용해 사고 사례를 간접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위험 대처 능력 향상을 돕고 있다. 특히 매월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시뮬레이션'의 효과가 크다. 노동자가 직무 유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직접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실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사 유관 부서를 비롯해 각 거점 센터장, 협력사 대표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리더십 교육'은 안전 경영 철학을 공유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곧 회사의 안전 경쟁력"이라는 믿음 아래 협력사의 안전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독자적인 지표인 'SRA(Safety Rating Assessment)'를 통해 협력사의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296개에 달하는 핵심 이행사항 점검과 정규 준수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사 안전체계의 잠재적 결함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협력사 5개 사업장의 SRA 평균 준수율이 97.02%를 기록하는 등 안전 역량의 상향 평준화를 이뤄냈다. 전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협력사가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울러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발적 동기를 부여한다. SRA 진단 결과 S등급(준수율 95% 이상)을 획득하거나 무재해를 달성한 우수 협력사를 매년 선정해 포상하고, 안전 예산 전용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포상에서 엄격히 제외해 '실질적 무재해' 달성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다.



“한솔로지스틱스는 ‘중대재해 ZERO’를 넘어선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물류산업의 안전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 ZERO’를 넘어,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
 “안전은 현장의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고정한 대표이사가 현장 직원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다. 그는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준다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러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현장 직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성장판으로 삼아, 한솔로지스틱스는 '중대재해 ZERO'를 넘어선 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편하고 실행과 개선에 집중해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안전 기준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필드 수원, 일상 공간을 안전 체험장으로

“스타필드 수원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쇼핑과 휴식의 일상 속에
안전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안전문화 이야기

수원 최대 복합쇼핑몰이 안전을 '규제'가 아닌 '문화'로 접근한다. 스타필드 수원은 미디어타워·가상현실(VR) 체험·QR 위험 신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고객과 직원이 쇼핑·식사·휴식 중에도 안전수칙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공간 전반을 설계했다. 공공기관·병원·소방서 등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직원의 위험 제보로 끼임 사고를 90% 줄이는 등 참여형 안전관리가 실제 재해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글. 박정미

일평균 수만 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1500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대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 1년간 규정과 지침 중심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을 체감하는 방식의 안전문화 정착 활동을 전개해왔다.

규제를 넘어 문화로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산업안전 정책은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되는 중이다. 고객과 직원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접촉하는 복합공간에서 안전관리자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개장한 스타필드 수원은 지하 8층부터 지상 8층까지, 연면적 33만1000㎡(약 10만 평) 규모에 37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4500대를 동시 수용하는 주차장과 별마당 도서관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수원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공간이다. 스타필드 수원은 대형 미디어타워를 통해 시기별 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송출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홍보 영상을, 8월에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내보냈다.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안전수칙, 화재 대응 행동 요령도 정기적으로 송출한다.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8월 2일, 스타필드 수원 5층 휴게실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 행사에서는 산업재해의 주요 유형인 떨어짐, 끼임, 부딪힘을 형상화한 퍼즐 맞추기와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적힌 에어볼 게임을 했다.

VR 장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간접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산업재해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하며 안전수칙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구성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안전 슬로건이 담긴 마중물 선물과 함께 치약·치솔 세트, 영화 관람권 등을 제공했다.

여름철에는 온열질환 예방존을 별도로 운영했다. 참여형 퀴즈와 퍼즐 활동을 통해 온열질환의 위험성과 5대 예방 수칙을 학습하도록 구성했다. 디지털안내판(DID)과 미디어타워를 통해서도 온열질환 예방 메시지 등 안전 정보를 전달했다.

직원 참여형 안전관리

고객 대상 프로그램과 함께 직원 참여형 안전 활동도 이어졌다. QR코드 기반 위험 신고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일하면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제보하면,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우수 제보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 신발 끼임 위험이 포착됐다. 개선 조치 후 크록스 등 특정 신발 관련 끼임 재해가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장 노동자가 직접 위험을 발견하고 제보하는 시스템이 실질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진 사례다.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은 2개월 주기로 정례화했다. 반복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체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직원 안전수칙 선언 이벤트도 진행했다. 각자가 지키고 싶은 안전수칙을 선언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를 통해 안전을 조직 차원의 규정이 아닌 개인의 실천 과제로 인식하도록 했다.



지역 협력체계 구축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3월 19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식에는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원영선 스타필드 수원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스타필드 수원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안전문화 슬로건 표출, 안전 메시지 확산 캠페인, 안전수칙 제정 캠페인, 대·중소기업 안전문화 공유 캠페인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력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하고, 범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도 양해각서(MOU)를 맺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점검 등 안전 컨설팅을 지원받고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시청, 소방서, 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는 을지 훈련, 화재훈련, 강절도 대응훈련 등 합동훈련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의료원 수원병원과는 응급 이송 체계를 연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놓았다.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일 조직 차원을 넘어선 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제조·건설업과 다른 접근

스타필드 수원의 안전문화 활동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일반 산업현장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산업 안전 문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복합쇼핑몰은 고객과 노동자가 함께하는 '생활 안전문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업장이 아닌 일상 공간이라는 특성상, 안전을 특정 상황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 식사, 휴식 등 모든 일상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넘어,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다중이용시설을 안전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은 사업장 내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스타필드 수원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자연스럽게 안전 메시지를 접하도록 했다.

순환형 안전문화 구축

스타필드 수원 측은 홍보, 참여, 체험, 교육, 훈련을 고객-임직원-브랜드-지역기관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타워 등 보유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기별 특성에 맞는 안전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각의 프로그램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가령 고객은 미디어타워로 안전 메시지를 접하고, 임직원은 안전수칙을 실천하며, 입점 브랜드는 안전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기관은 전문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와 사업주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협약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스타필드 수원이 안전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 수원 측은 안전을 비용이 아닌 고객 경험의 가치이자 브랜드 경쟁력으로 전환해, 안전 자체가 고객을 유입시키는 요소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개화기 정동의 역사와 향기,

숨결까지 담다

과학으로 탄생한 맥주에
이야기를 입히는 곳,
정동독립맥주 양조장

글. 김정덕 사진. 김현철

서울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정동길. 500년 된 회화나무가 묵묵히 세월을 지키고 있는 이 거리에는 구한말의 역사가 고스란히 숨 쉬고 있다. 그리고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 일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에 조금 특별한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 있다. 정동독립맥주 양조장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도시의 공기는 사라지고 오래된 것들이 주는 포근함이 외부인을 맞이한다. 맥주라는 매개체를 통해 100년 전 개화기의 낭만을 전하는 이곳은 현실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판타지' 공간이다. 이곳에서 맥주를 만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윤한샘 대표는 스스로를 '망한 자영업자'에서 '행복한 양조사'로, 다시 '문화 기획자'로 정의한다. 그가 따고 열정으로 빚어내는 수제맥주 양조장을 살펴보았다.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시간 여행을 맞보다

정동독립맥주의 육중한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진다. 입구 옆으로는 오래된 느낌의 오크통과 은빛의 케그, 맥아가 들어 있는 묵직한 자루들이 따뜻한 조명을 받으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정동의 상징인 화화나무를 오마주한 나무 조형물 뒤로 진한 갈색빛 테이블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 테이블들에는 조금 특별한 기억이 쌓여 있다. 바로 옛 초등학교 교실의 바닥재를 재활용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매끄럽게 코팅된 요즘 가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투박하지만 손때 묻은 나무의 질감이 방문객의 긴장을 해제시킨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면 독특한 형태의 조명들이 눈에 띈다. 보헤미안 감성이 가득 담긴 수공예 조명들은 이 공간의 초기 설립자가 직접 하나하나 깎고 다듬어 만든 것으로, 공간 전체에 자유로운 영혼을 불어넣고 있다. 공간 오른쪽에는 이곳에서 만든 맥주를 즐길 수 있는 탭 바(Tap Bar)가 자리 잡고 있다.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탭 핸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정렬된 악기들이 연주를 기다리는 무대처럼 공간 전체에 기대와 리듬을 불어넣는다.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 작 추출된 신선한 맥주가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잔에 채워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거품이 넘치지 않게 능숙한 손놀림으로 맥주를 따르는 모습, 탭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한 흡의 내음은 방문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이곳을 더욱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완성한다.

가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동독립맥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양조 시설을 만나게 된다. 은빛 광택이 도는 스테인리스 당화조와 끓임조, 발효조가 일렬로 서 있다. 각 탱크 위로는 호스와 파이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양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빨아들이는 배기 덕트가 천장으로 이어져 있다. 마주한 반대 공간에는 맥아를 빻는 분쇄기가 자리하고 다른 쪽에는 홉과 효모, 각종 몰트가 정리되어 있다.

윤한샘 대표는 이곳을 맥주와 음식이 아닌 '판타지를 파는 곳'이라고 표현한다. 개화기 정동의 문화를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 그의 목표다. '정동의 겨울' '작은 소녀상' '석조전 계단에 앉아' '유관순의 빨래터' 같은 맥주 이름들에서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산업적인 양조 환경과 아늑한 브루펍의 분위기가 조화를 이루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잠시 현실을 벗어나 낭만 가득한 시간 여행을 경험한다.



맥주를 빚고 문화를 전하다

윤한샘 대표는 맥주 양조와 매장 관리는 물론 맥주 문화 전파까지 하고 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그가 맥주 양조사가 된 것은 우연이었다. 술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서도 와인과 위스키의 향을 좋아했던 그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시작한 와인 공부가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고, 2000년대 초반 와인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했다. 인생의 전환점은 2009년 독일 출장에서 찾아왔다. 그곳에서 접한 독일 맥주의 다양한 맛도 인상적이었지만,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대하는 태도가 특별하게 다가왔다. 맥주 하나를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점심에 맥주를 마셔도 자연스럽게, 지역마다 고유한 맥주가 있으며 사람들이 자기 맥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맥주의 매력에 빠진 그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때는 제대로 된 책도, 자료도 부족했다. 그래서 해외 서적을 찾아 번역하며 공부했다. 마침 한국에 수입 맥주가 들어오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크래프트 맥주 문화가 싹트던 시기였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맥주 애호가들과 펍 투어를 다니며 맥주 문화를 즐겼다. 그 무렵 총동적으로 서울 상암동에 펍을 열었다가 2년 만에 포기한 쓰라린 경험도 했다. 비록 자신의 펍은 접어야 했지만 맥주와의 인연은 끊을 수 없었다. 2017년 한국맥주문화협회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연이 시작했다. 협회의 원래 목적은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맥주 개발이었지만 홉과 보리의 99%를 수입하는 현실에 부딪혔다. 방향을 전환한 그는 먼저 맥주에 대한 올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맥주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관련 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좋은 술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런 문화는 사라지고 왜곡된 음주 문화만 남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처럼 맥주를 문화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활동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이 공감하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맥주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관련 산업도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그는 맥주를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연세대 미래교육원에서 8년째 ‘비어 도슨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맥주와 영화, 음악, 문학을 접목한 인문학 강연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맥주 관련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했고 국내외 브루어리 투어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노력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공공기관과 도서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10여 년째 맥주 인문학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그는 이런 변화를 맥주가 단순한 술을 넘어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그런 그에게 양조장 인수라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사실 정동독립맥주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양조사가 아닌 문화기획 전문가였다. 정동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온 설립자는 양조에 매료돼 공간을 만들었지만 석 달 만에 본인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이곳이 정동 문화를 보여주는 장소로 남길 원했고 책임자를 물색했다. 마침 윤 대표의 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윤 대표를 추천했다. 한 차례 실패를 경험한 만큼 매장 운영을 다시 해보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동 문화를 보존하고 싶다는 설립자의 마음이 깊이 공감해 먼저 협회 이름으로 인수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대표로 본격적인 운영을 맡게 됐다. 문제는 양조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론은 완벽했으나 실전 경험이 없던 그는 경험 많은 후배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결국 그가 직접 양조장에 들어서게 됐다. 예상대로 처음 6개월은 악전고투였다. 장비의 절반을 고장 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시간을 버텨낸 지금은 어떤 열악한 환경도 두렵지 않은 숙련된 양조사로 인정받고 있다.

차가운 과학과 따뜻한 서사의 '밸런스'

정동독립맥주의 양조실은 생각보다 소박하다. 양조장 내부는 당화조와 끓임조, 발효조 이 세 가지가 전부다. 대부분 자동화된 요즘의 양조장과 달리 이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일일이 필요한 수동 기계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곳을 '양조의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는 최적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양조 과정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분쇄한 맥아를 당화조에 넣어 1시간 동안 당을 뽑아낸 뒤 끓임조로 옮겨 60분 이상 끓인 다음 홉을 넣는다. 냉각기를 거쳐 발효조로 이동시킨 뒤 효모를 넣어 발효시키는데 에일은 약 10일, 라거는 약 20일의 시간이 걸린다. 발효가 끝난 맥주를 케그나 병에 넣으면 상품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단순하나 그 안에는 치밀한 과학이 숨어 있다. 완전한 맥주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 곳곳에 양조사의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윤 대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숫자'다. "맥주는 모든 게 숫자로 결정돼요. 알코올 도수, 쓴맛의 정도, 색깔 등 모든 레시피는 숫자로 표시되는데 그걸 0.1의 오차도 없이 구현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과학이 적용되는 술이 바로 맥주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의 산물이죠."

양조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시계를 확인하고, 온도를 재고, 수치를 기록한다. 양조사는 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탄생시키고, 자신의 노하우가 담긴 자신만의 맥주를 세상에 탄생시킨다. 하지만 그가 양조할 때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기술 너머에 있는 양조사의 세계관이다. 좋은 재료와 뛰어난 기술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맥주가 왜 세상에 태어나야 하는가' '사람들이 왜 이 맥주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오직 양조사만이 내릴 수 있다. 그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누군가 찾아주지 않는 맥주는 음식물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듯 맥주에도 고유한 서사를 입히고 이름을 붙여주어야 하는데 이는 양조사가 부여받은 특권인 동시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철학은 정동독립맥주에서 만날 수 있는 맥주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동의 겨울' '작은 소녀상' '석조전 계단에 앉아' '유관순의 빨래터' '오얏꽃의 꿈' 등 이곳의 맥주 이름에는 모두 정동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다. 맥주에 붙은 라벨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우리 전통 문양과 한글을 사용한다.



이 같은 철학과 낭만이 담긴 결과물을 만드는 그의 현장에는 늘 긴장이 흐른다. 특히 맥주는 물을 100도까지 완전히 끓여야 하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위생 또한 철저히 지켜야 한다. 양조가 끝난 뒤에는 강알칼리성 약품을 사용해 세척하는데, 피부에 치명적이어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 곰팡이와 싸워야 하는 여름, 발효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겨울 등 계절마다 다른 숙제 역시 양조사의 몫이다. 그렇다면 맥주를 만드는 양조사이자 맥주 문화 전도사인 그가 생각하는 맛있는 맥주란 어떤 것일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맥주의 맛은 '밸런스'입니다. 양조사의 고집과 대중의 기호 사이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는 아무리 양조사가 표현하고 싶은 맛이 있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맥주는 생명력을 잃는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쓴맛이나 신맛이 지나치게 도드라지는 극단적인 스타일은 지양한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영국식 에일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되,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균형 잡힌 맛을 추구한다. 기술적 완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마시는 사람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윤한샘 대표는 이제 정동을 넘어 더 큰 맥주 생태계 구성을 꿈꾸고 있다.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인 양조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산업은 전반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는 맥주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외부 양조장을 설립해 더 많은 사람에게 정동독립맥주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놓치지 않으려는 핵심은 'K맥주'의 본질이다. 그는 단순히 인삼이나 쌀 같은 한국적 재료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야기를 담은 맥주를 선보이고자 한다. 긴 세월 정동길을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회화나무처럼 그가 빛어내는 맥주 문화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다양한 수제맥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수제맥주 종류와 음식 페어링

수제맥주는 발효기법과 선택한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인 수제맥주는 무엇이며 각 스타일의 맛과 향, 그리고 그 성격에 맞는 음식은 무엇일까?

라거(Lager): 하면발효로 만들며 깔끔하고 청량한 맛이 특징이다. 쓴맛과 향이 과하지 않아 치킨, 피자, 튀김류는 물론 회나 초밥 같은 담백한 해산물과도 조화를 이룬다. 음식 사이사이에 입안을 산뜻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한다.

에일(Ale): 상면발효로 만들어 향이 풍부하고 과일·꽃·캐러멜 같은 뉴앙스가 두드러진다. 이런 복합적인 향 덕분에 구운 치킨, 소시지, 바비큐처럼 풍미와 기름기가 있는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린다. 맥주의 향이 음식의 진한 맛을 부드럽게 정리해 준다.

페일에일(Pale Ale): 맥아의 고소함과 홉의 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형 에일이다. 피시앤칩스, 구운 생선, 파스타처럼 일상적인 음식과 두루 어울려 부담 없이 즐기기 좋다.

사워에일(Sour Ale): 산미를 강조한 스타일로 상큼하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이다. 튀김류나 치즈, 샐러드, 해산물과 잘 어울린다. 카르보나라 스파게티, 과카몰리, 과일 케이크, 호떡, 약과처럼 느끼한 음식이나 단맛이 많은 디저트에도 좋다.

IPA(India Pale Ale): 홉을 많이 사용해 씹쌀함이 강하고 감귤·솔·열대과일 향이 뚜렷하다. 이 강한 개성은 햄버거, 매운 치킨, 카레, 타코, 양념이 진한 한식과 잘 맞으며, 쓴맛이 기름기와 매운맛을 잡아 균형을 만든다.

스타우트(Stout)/ 포터(Porter): 볶은 맥아에서 나오는 커피와 다크초콜릿 같은 로스티한 풍미가 특징이며 질감이 묵직하다. 스테이크나 바비큐, 훈제 고기와 잘 어울리고, 초콜릿 케이크나 브라우니 같은 디저트와 매치하면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

바이젠(Weizen): 밀맥주로 바나나와 정향 같은 효모 향이 나며 부드럽고 상큼하다. 독일식 소시지, 닭요리, 샐러드, 해산물처럼 가볍고 담백한 음식과 어울려 청량함을 살려준다.



사업주·노동자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계도

2025. 12. 15.~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3대 기초 안전수칙

안전모

사업주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사업주로부터 받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대

사업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사업주로부터 받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안전벨트

사업주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는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집중점검주간에 앞서 노사가 직접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5. 12. 15. ~ 3대 기초 안전수칙 집중 홍보



2026년 국제산업 안전보건동향 원고 모집

제출 방법

주제: 최근 1년 이내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건 관련 소식

분량: A4용지 기준 2장 내외

제출처: overseas@kosha.or.kr

작성 요령

원고는 배경, 본문, 시사점, 참고문헌으로 구성
제출 시 참고문헌 파일 반드시 첨부

원고료

검토를 거쳐 기재가 확정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료 지급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은 해외 주요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연구, 우수 사례 등을
국내에 알리는 안전보건공단의 계간지입니다.
다양한 해외 소식을 전하는
국제동향 코너에 실릴 원고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안전은 단순한 '도색'이 아니라

'CUD 시스템' 설계로 완성된다"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전공
이현성 교수에게 듣는
산업 안전 디자인의 미래와 전략

글. 김정덕

"우리는 흔히 안전 디자인이라고 하면 위험한 곳에 빨간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 디자인은 색채 이전에 '맥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0.1초 만에 위험을 감지하게 만드는 시각적 기술,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배려. 이것이 바로 진정한 CUD(Color Universal Design)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산업 안전 디자인의 방향입니다."



Color: 색으로 산재를 잡자

공공디자인 전문가인 이현성 교수(홍익대학교)의 시선은 늘 우리 사회의 가장 척박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있다. 그는 20년 넘게 공공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4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베테랑이자, 디자인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가'다. 이 교수는 지난해 열린 산업 안전 디자인 세미나에서 '산업 안전 디자인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그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단순히 시설물의 문제로 보지 말고 '사람'과 '심리' 그리고 '시스템'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다양한 산업 안전 디자인 활동을 통해 CUD 가이드라인 정립에도 힘쓰고 있다. 늘 위험이 존재하는 현장에 '안전'이라는 따뜻한 입체성을 불어넣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0.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산업현장에서 CU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령 노동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 색각이상자까지 그 누가 보더라도 정보를 직관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CUD, 단순한 배려가 아닌 '인지공학적 솔루션'

이현성 교수는 CUD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했다. 많은 사람은 CUD를 단순히 적록색약이나 색각이상자를 위해 색을 바꾸는 시혜적인 복지 차원으로만 이해한다. 하지만 그는 'CUD는 생존을 위한 가장 빠른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이 정보를 인지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빠르고, 이미지보다 색채가 월등히 빠릅니다. 위급한 순간, '위험'이라는 글자를 읽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빨간색'을 감지하는 건 본능적이죠. 0.1초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산업현장에서 CUD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령 노동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 색각이상자까지 그 누가 보더라도 정보를 직관적으로, 그리고 동일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본질인 '범용성'을 설명하며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욕탕 수도꼭지를 예로 들었다. 굳이 '뜨거운 물' '찬물'이라는 텍스트 없이도 빨간 점과 파란 점만으로 누구나 구별해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또 어두운 곳에서 녹색 잔상이 가장 길게 남는 '푸르키네' 현상을 이용한 비상구 유도등처럼, 색채는 철저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공장들이 이러한 과학적 접근 없이 온통 빨간색과 노란색 경고문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시각적 자극은 정작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만드는 '시각적 소음(Visual Noise)'을 유발합니다. 진짜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공간의 '비움'이 필요합니다." 그 해법으로 이 교수가 제시한 핵심 전략은 '배경색의 통제(Figure & Ground Control)'다. 안전색인 빨강과 노랑을 돋보이게 하려면 주변 환경의 색을 차분하게 눌러줘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바르셀로나나 싱가포르의 표지판이 유독 잘 보이는 이유를 건물 외벽과 거리의 배경색을 무채색으로 정돈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노란색 간판과 알록달록한 상점들이 즐비해 정작 안전펜스가 묻혀버리는 우리나라 스쿨존이나, 화려한 설비와 바닥 색이 뒤섞인 공장은 경고 표시를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꼬집었다. 결국 진정한 CUD는 위험 요소를 부각하기 위해 나머지 공간을 '무채색'으로 정리하는 통합적인 공간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안전이 딱딱한 ‘의무’가 아닌 흥미로운 ‘재미’로 다가갈 때 비로소 현장의 안전문화가 바뀔 수 있다.”

공장 내 ‘트래픽 플래닝’과 행동 유도 전략

시선을 공장 바닥으로 옮기자, 이 교수는 공장 내부를 ‘신호등 없는 도시’에 비유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공장은 거대한 트레일러와 지게차, 사람이 뒤섞여 움직이는 일종의 ‘미니 도시’와 같다. 하지만 도심보다 훨씬 위험한 중장비가 다니는 이곳에 정작 체계적인 ‘교통 계획(Traffic Planning)’은 전무하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도시에는 차도와 인도, 신호등 체계가 명확하나 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모호하고, 교차로에 신호등 하나 없는 곳이 태반이죠. 단순히 바닥에 선 하나 긋는 것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공장 내부에도 도시계획처럼 명확한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교차로에는 레이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는 해외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행동을 강요 대신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행동 유도(Nudge) 디자인’을 제안했다. 덴마크에서 쓰레기통까지 녹색 점선을 그려두자 사람들이 이를 따라가 쓰레기를 버린 사례처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장 바닥에 단순히 선만 긋는 대신 ‘발자국 모양’을 그리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멈춰 섭니다. 또 차량 속도를 줄이는 데는 ‘예측 불가능성’이 효과적이죠. 횡단보도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홀로 그램 동물은 운전자가 놀라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어 사고를 예방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을 디자인하는 너지 효과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인이 시각보다 청각 정보에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청각적 너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고속도로 터널의 사이렌 소리가 졸음운전과 사고를 예방하는 것처럼 공장 내 위험 구간에도 시각적 경고와 함께 청각적 자극을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실수 제어를 위한 심리적 접근, 정서적 안전 디자인 필요

이현성 교수의 안전 철학은 물리적 환경을 넘어 노동자의 심리까지 닿아 있다. 그는 ‘산업재해의 88%가 기계 결함이 아닌 사람의 실수에서 기인한다’는 산업안전 연구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의 분석을 인용하며 ‘산업 복지’로서의 디자인을 역설했다.

“왜 실수를 할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노동부 자료를 봐도 1만2000건의 산업재해 원인이 PSR(Psychosocial Risks), 즉 심리 사회적 위험입니다. 기계 정비에는 수억원을 쓰면서 정작 그 기계를 돌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나요? 노동자가 작업장으로 돌아가기 전 단 10분이라도 뇌를 식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그는 실제 진행된 원자력발전소 안전 디자인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사례를 들려주었다. 보통 공장의 흡연구역은 구석진 곳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는 그곳을 새소리가 들리고 숲처럼 꾸며진 ‘힐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잠깐이라도 어두운 구석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자연을 느끼며 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휴식의 질이 높아지자 소위 말하는 ‘아차사고(Near Miss)’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일만 강요하는 공장보다 ‘나를 배려해주는 공간’이 있는 공장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가 ‘정서적 안전 디자인(Emotional Safety Design)’을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

그는 안전 교육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아침 조회시간에 상사가 일방적으로 안전수칙을 읽어내려가는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그날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위험 예측 기법(Kiken Yochi Training)을 기반으로 한 그림 카드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나, 안전 활동 참여 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 도입을 제안했다. 안전이 딱딱한 ‘의무’가 아닌 흥미로운 ‘재미’로 다가갈 때 비로소 현장의 안전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 디자인의 표준화와 미래: ‘안전 디자인 키트’와 디지털 전환

대화가 깊어지면서 주제는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옮겨갔다. 이 교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영세 중소기업들에 고비용의 디자인 컨설팅은 ‘그림의 떡’일 뿐인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교수는 ‘안전 디자인 키트’ 보급을 제안했다. 영세 사업장에 무작정 페인트 비용을 지원하기보다 검증되고 표준화한 안전 디자인 키트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가 구상하는 ‘키트’는 일종의 조립식 안전 패키지다. 공장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둥, 문, 바닥, 위험 기계 등에 부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티커와 가이드라인이다. 이를 대량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하자는 것이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부품을 고르듯, ‘표준형 A타입’ ‘보급형 B타입’ 식으로 나누어 사장님들이 예산에 맞춰 필요한 파트를 골라 붙이기만 하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면 2000만원 들던 비용을 10만~20만원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표준화된 키트를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한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안전 수준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디자인 복지’이자 공공 디자인입니다.”

그는 미래 기술과의 접목도 강조했다. 최근 AI CCTV가 사람의 움직임 패턴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할 정도로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공장 안전 디자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바닥의 안전선이 단순한 페인트가 아닌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구현되어 상황에 따라 색깔이 바뀌고, 위험 감지 시 즉각 알람을 주는 반응형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미래 청사진이다.

이 교수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디자인은 결국 문제 해결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과거의 디자인은 제품이 잘 팔리게 하는 포장 기술이었다면, 미래의 디자인은 고품화, 다문화, 산업재해 같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는 ‘안전은 칠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철학을 통해 안전 디자인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투자로, 나아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 그는 표준 모델 정립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철학이 산업현장 곳곳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차가운 쇠소리가 가득한 공장에 따뜻한 ‘디자인의 숨결’을 불어넣을 그의 행보가 일터들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안전 경영을 위한 리비히의 법칙(Liebig's law) &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 (Anna Karenina principle)

글. 문광수 교수_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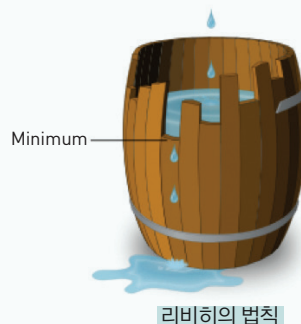
안전은 '전체 평균'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대개 성실하다. 안전 슬로건을 만들고, 위험 표시·포스터를 붙이고, 안전회의를 늘리고, 교육 시간을 확대한다. 그럼에도 사고는 또 발생한다. 문제는 의지 부족보다는 우리가 안전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이 전체 평균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회사 안전관리는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고는 전반이 아니라 예외와 취약점에서 발생한다. 현장 안전은 ‘평균 점수’로 움직이지 않는다. 어느 한 구역, 어느 한 공정, 어느 한 팀의 취약점이 전체 결과를 결정 짓는 비선형 시스템에 가깝다. 한 달 내내 준수하던 규정을 단 하루, 하나의 작업에서 위반하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오래된 법칙이 안전관리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 같다. 하나는 농업 비료 분야에서의 통찰인 ‘리비히의 법칙(최소량의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복잡계의 성공 조건을 설명하는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다. 이 둘을 안전관리와 안전문화에 비유적으로 연결하면, 기업이 어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해진다.

리비히의 법칙

이 법칙은 ‘성장은 가장 부족한 요소에 의해 제한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를 안전관리에 적용하면 ‘현장의 안전 수준은 안전



리비히의 법칙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취약한 요소에 의해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안전 시스템의 요소는 설비의 방호장치, 정비 품질, 작업 표준서, 위험성평가, 작업허가(PTW), LOTO, 교육, 감독, 협력사 관리, 교대 인수인계, 작업환경, 일정 압박, 리더십, 소통 등 다양하다. 이 중 어느 하나가 ‘취약 요소’가 되는 순간, 기업이 쌓아 올린 안전 활동의 높이는 그 지점에서 멈추게 된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이 충분하고, 개인보호장비(PPE)도 지급되며, 안전회의도 활발한데 작업허가가 형식화되어 고위험 작업이 형식적인 서명만으로 통과된다면, LOTO가 ‘급할 때는 생각’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이 경우 추가 교육이나 캠페인을 강화해도, 그림의 통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이 새듯 사고 가능성은 남게 된다. 따라서 리비히의 법칙 관점에 따르면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제한하는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문서상으로는 존재하는가?”

“그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교육인가, 설비 보완인가, 권한 부여인가, 일정·계약 구조의 조정인가?”

즉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가장 취약한 부분을 개선했다’로 안전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Liebig%27s_Law_of_the_Minimum

Note

“안전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이며, 그 구조는 두 겹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는 매 순간 바뀌는 현장의 ‘취약 요소’를 찾아 집중 개선하는 실행력이고, 다른 하나는 무재해의 필수조건을 조직의 경영 루틴에 고정하는 체계다.”

안나 카레니나 법칙

리비히의 법칙은 당장의 병목을 해결하는 데 탁월하지만, 장기적으로 무재해를 유지하는 안전관리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은 ‘성공이란 여러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실패할 수 있다’는 원리다. 이를 안전에 적용하면 ‘계속 안전하려면 무엇을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조건을 8~12개 수준으로 정리해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를 구축한 기업을 벤치마킹하면 공통점이 보인다. 규모, 업종이 달라도 비슷한 ‘성공의 조건’이 있다.

- 경영진의 안전 의사결정 일관성(일정·원가 압박 시에도)
- 고위험 작업허가(PTW)·격리(LOTO)·검증 체계의 실효성
- 현장 관리감독자의 역량(관찰·피드백·코칭)
- 위험성평가의 현장성(문서가 아닌 작업 전 대화와 조치 시행)
- 협력사 통합 운영(동일 기준·동일 권한·동일 피드백 루프)
- 보고·학습 문화(준사·이상징후 보고, 불이익 없음)
- 변경관리(MOC) 및 설비 무결성(정비·검사·노후화 관리)
- 인력·교대·피로 관리(무리한 연장근로, 숙련도 공백 관리)
-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자원(예산·시간·부품과 작업 중단 권한)
- 성과 지표의 균형(생산 KPI가 안전을 압도하지 않도록)

이 조건들은 하나만 잘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작업중지권이 제도상 있어도, 일정 압박과 불이익이 존재하면 실제 행사되지 않는다. 데이터 분석이 정교해도, 현장 개선 권한과 예산이 없으면 개선이 실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필수조건들은 ‘캠페인’이 아니라 ‘안전 경영 시스템의 항목’이 되어야 한다. 즉 월간 경영 회의에서 생산·품질과 동일한 무게로 다루고, 취약 항목에는 책임·예산·기한이 붙어야 한다. 즉 무재해의 유지는 ‘몇 가지를 잘한 결과’가 아닌 ‘필요 조건들을 모두 잘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은 ‘한 가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빠진 것을 메우는 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은 대개 “무엇을 더할까”로 시작한다. 그러나 리비히 법칙과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 주는 메시지는 반대 에 가깝다. 안전은 가장 약한 고리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는다(리비히). 장기간의 무재해는 필수조건들을 동시에 충족하지 않으면 확보되지 않는다(안나 카레니나). 따라서 안전문화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이며, 그 구조는 두 겹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나는 매 순간 바뀌는 현장의 ‘취약 요소’를 찾아 집중 개선하는 실행력이고, 다른 하나는 무재해의 필수조건을 조직의 경영 루틴에 고정하는 체계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안전은 ‘이벤트’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 된다.

기업이 진정으로 무재해를 원한다면, 다음 질문으로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안전관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무재해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 충실히 진행되고 있는가, 오늘 빠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이 분명해지는 순간, 안전관리는 캠페인이 아니라 경영이 된다.

참고 문헌

van der Ploeg, R. R., Böhm, W., & Kirkham, M. B. (1999). On the origin of the theory of mineral nutrition of plants and the Law of the Minimum. *Soil Science Society of America Journal*, 63, 1055-1062.

Sinclair, T. R., & Park, W. I. (1993). Inadequacy of the Liebig limiting-factor paradigm for explaining varying crop yields. *Agronomy Journal*, 85(3), 742-746.

Diamond, J. (1997). *Guns, Germs, and Steel: The Fates of Human Societies*. New York: W. W. Norton.

Bornmann, L., & Marx, W. (2012). The Anna Karenina principle: A way of thinking about success in scienc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10), 2037-2051.

공단을 대표하는 얼굴 AI 휴먼

세온·세아



“안전보건공단은 뉴미디어에 익숙한 2030세대를 겨냥해 산재 예방 분야의 새로운 얼굴인 세온과 세아를 탄생시켰다.”

AI 휴먼 ‘세온·세아’, 산재 예방 홍보 최전선에 나서다

SNS와 OTT 등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콘텐츠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산재 예방 분야에도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바로 AI 휴먼 ‘세온’과 ‘세아’다. 안전보건공단 직원의 얼굴을 딥러닝 기술로 구현한 이들은 뉴미디어에 익숙한 2030세대를 겨냥한 전략적 선택이다. 초상권 동의를 거쳐 탄생한 세온과 세아는 ‘공단의 얼굴’로서 SNS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산재 예방 활동으로 대중과 소통한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5년부터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AI 휴먼 세온, 세아입니다.

세아 저희는 산재 예방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탄생했어요. 저희 얼굴과 목소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온 저희 이름도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이 함께 정해주셨어요. ‘세온’은 ‘Safety On’과 ‘Safety Only’, ‘세아’는 ‘Safety Expert AI’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언제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다가하겠습니다.

Q. 안전보건공단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세온 저희가 속한 안전문화홍보실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제 안전보건전시회, 캠페인, 업무협약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중에서도 SNS와 홍보영상에 출연하며 산재 예방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 주로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어요. 카드뉴스로 계절과 시기에 맞는 안전보건 정보를 전달하고, 쇼츠 영상에서는 댄스를 통해 안전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위해서는 각국의 언어로 직접 안내하기도 하고, 홍보 영상 내레이션도 맡고 있어요. 산재 예방을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홍보 업무는 무엇인가요?

세온 최근 공단의 새로운 가치체계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한 역할과 전략 방향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를 저희가 직접 안내했는데요. AI 휴먼으로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세아 저는 어린아이로 등장한 영상이 기억에 남아요. 일상 속 아이의 시선에서 본 행동들이 산업현장의 안전수칙과 연결되며 자연스럽게 안전보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귀여운 제 어린 시절 모습도 인상 깊었지만, 안전이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뜻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Q. 2026년 포부를 밝혀 주세요.

세아 SNS를 통해 더 많은 분과 만나고 싶어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AI 휴먼으로서 친근하고 재미있게 안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온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장점이에요.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죠. 앞으로도 저희를 통해 산재 예방 메시지가 더 많은 분께 전달되도록 SNS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OSHRI :VIEW



산업재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전문지를 메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OSHRI:VIEW란?

산업안전보건의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를 소개하는 뉴스레터 형식의 연구전문지입니다.

내용

-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연구과제 소개
- 현재 OSHRI 연구진이 수행하는 전문활동 내용

신청방법



OSHRI:View

큐알코드로 접속하여 메일링 신청

*신청한 다음달 호부터 발송 예정

문의 052-703-0816,7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과제 수시 공모

공모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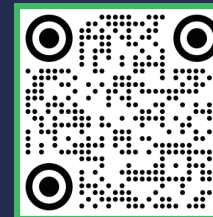
안전보건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 주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제안 방법



좌측 QR코드로 접속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 (oshri.kosha.or.kr) → 참여마당 →
연구과제 제안

기타 사항



참여자에게 커피 교환권(1만원 상당) 증정 예정

※ 공모 주제와 무관한 경우 증정 대상 제외

데이터가 주도하는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KSCI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현과 사업장 안전문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글. 최원창 부장_안전보건공단 안전문화홍보실



KSCI의 체계적 구성과 기술적 신뢰성

KSCI는 안전문화를 “조직 또는 사회 내에서 안전을 중요시하는 가치와 규범, 행동양식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제임스 리즌의 스위스 치즈 모델(Swiss Cheese Model)에 따르면, 사고는 조직 내의 잠재적 결함과 현장의 능동적 오류가 일직선으로 정렬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직 내 다층적 방어벽의 잠재적 결함 구멍을 메우는 접착제로서 안전문화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KSCI는 조직의 안전문화 수준을 쉽고 간편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모듈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쿠퍼(Cooper)의 상호작용 모델을 기반으로 인적 요인(인식·행동)과 시스템적 요인(지식·설비)을 통합적으로 측정합니다. 국내외 26개 안전문화 변인을 심층 분석해 우리 산업현장에 최적화한 5대 핵심 변인과 9개 하위 변인을 도출했습니다.

5대 핵심 변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 리더십**으로, 경영진의 안전 의지와 자원 투입, 그리고 관리자의 술선수범 및 동기부여 능력을 측정합니다. **둘째, 안전 행동**으로, 규정 준수인 ‘안전 순응’과 동료를 돕는 ‘안전 참여’를 평가합니다. **셋째, 안전 지원체계**로, 물리적 인프라(H/W)와 관리 소프트웨어(S/W)의 현장 작동성을 진단합니다. **넷째, 안전 훈련**으로, 교육의 체계성과 실무 적용력을 봅니다. **다섯째, 안전 소통**으로, 조직 내 수평적·수직적 정보 공유의 투명성을 확인합니다. KSCI는 분석을 통해, 변인별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0.9 이상 기록하며 도구의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KSC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안전문화의 필연적 결합

우리나라 산업현장은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안전 관리가 물리적 설비(H/W)나 문서화된 시스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고의 근원적 원인인 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안전 문화(Safety Culture)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2030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규제, 처벌 중심의 관리를 넘어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를 포함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전 성숙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정교한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안전 문화 평가지표(KSCI, Korea Safety Culture Index)가 선제적 예방체계의 실천력을 담보할 핵심 기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본형(18문항, 5분 소요)과 확장형(48문항, 15분 소요)으로 이원화해, 신속한 진단부터 심층 분석까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증 분석에 따르면, 사망사고 미발생 사업장은 발생 사업장에 비해 KSCI 모든 변인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안전문화 수준이 향후 재해 발생을 예측하는 강력한 선행 지표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KSCI를 활용한 진단은 단순히 점수를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시스템의 결함구멍을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개선하는 전문적인 예방 활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KSCI 활용을 통한 사업장 안전문화 및 선제적 지원 전략

안전보건 관계자들은 KSCI를 단순한 설문 도구가 아닌,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변화 관리 솔루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KSCI 진단 후 제공되는 모듈화된 결과 보고서는 경영진과 노동자 간의 인식 격차를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통의 부재가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수준별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근거 중심의 안전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수가 낮은 영역에 대해서는 선제적 컨설팅과 연계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선 KSCI 진단 결과를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과 긴밀히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대책에서 강조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 현장에 대해서는 다국어 설문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진단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외국인 안전

리더’ 양성 등 실천적 대책을 병행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함께 KSCI를 공동 활용하는 ‘공급망 안전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과 협업해 지역 특화 예방 활동에 KSCI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의 우수한 안전 역량이 중소기업으로 전파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문화 향상 노력도를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가점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참여 유인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에서도 KSCI를 자율적 안전 경영의 척도로 활용해 우수기업 인증 및 금융 혜택 등과 연계함으로써 안전이 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의 내재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지향하는 ‘사고 없는 일터’는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공유하고 실천하는 조직 문화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KSCI는 이러한 무형의 안전문화를 수치화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 엔진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정밀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안전보건 관계자들은 KSC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 지자체, 모든 사업장이 KSCI라는 도구를 통해 선제적 예방 지원을 실천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 안전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KEY MESSAGE

작업 시 올바른 안전모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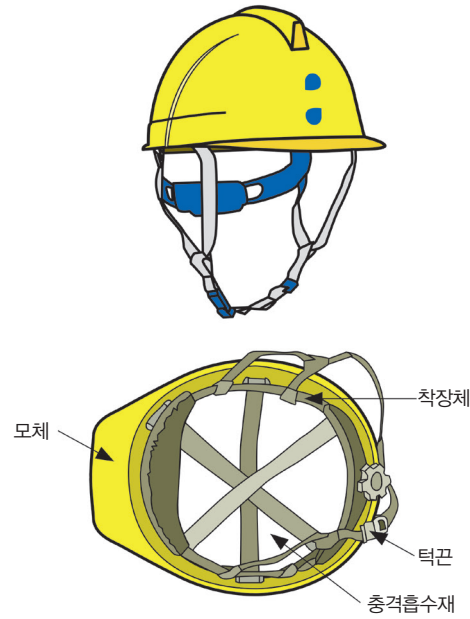
주요 사고 사례

- (2026. 1. 7.) 경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막 제거작업 중 추락 <사망 1명>
- (2025. 12. 10.) 경북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재작업 중 별도목에 맞음 <사망 1명>

<안전모> 안전한 보호구 착용 가이드

• 구매, 사용 지침

- 01 안전인증 제품 중 작업 용도에 맞는 용량·등급(ABE, AB, AE, A형)을 선택해 사용
- 02 착용 전 모체의 파손·변형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
- 03 신체조건 등 사용자에게 적합한 사이즈를 선택하고, 사용자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용체의 머리고정대 조절
- 04 턱끈을 조여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고정해 사용
- 05 사용 기간이 오래된 제품, 손상·파손된 제품 등은 사용을 금지하고, 제조사의 권장 주기에 맞춰 교체
- 06 제품 사용 전 제조사가 제공하는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 설명서 확인



안전인증품*

자율안전확인신고품*

ABE형
낙하·비래·추락·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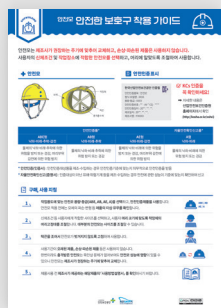
AB형
낙하·비래·추락

AE형
낙하·비래·감전

A형
낙하·비래

* 안전인증(인증서): 안전인증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의무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음(KCs 마크 확인)
* 자율안전확인신고(중명서): 자율안전확인대상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KCs 마크 확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안전모'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 (O P S) 안전모 착용 가이드
- (스티커) 보호구 착용 상태
- (스티커) 안전모 착용
- (동영상) 보호구 착용 매뉴얼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모'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KEY MESSAGE

작업 시 올바른 안전대 착용

주요 사고 사례

- (2026. 1. 7.) 경북에서 안전대 미착용 상태로 지붕 개량 작업 중 추락 <사망 1명>
- (2025. 12. 12.) 서울에서 안전대 연결 불량 상태로 강풍 해체작업 중 추락 <사망 1명>

<안전대> 안전한 보호구 착용 가이드



그네식 안전대

그네식 안전대는 추락 시 충격하중을 분산시켜 신체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 구매, 사용 지침

- 01 안전인증 제품 중 인증 표시의 용량·등급(벨트식, 안전그네식, 1개걸이용, U자걸이용 등)을 확인하여 작업 종류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 사용
- 02 안전대와 고정장치(앵커 등), 안전대와 연결장치(침줄, 카라비너 등) 등의 연결 이상 여부 확인(추락 방지를 위한 침줄은 반드시 등 부위 D링에 연결)
- 03 착용 전 로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침줄의 재봉 상태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
- 04 벨트 등을 조절하여 사용자의 몸에 맞게 고정한 후 착용
- 05 추락방지대 사용 시 각인된 사용 방향 및 구멍줄의 직경 확인 후 사용
- 06 안전블록 사용 시 해당 안전블록과 함께 인증받은 그네식 안전대 사용
- 07 제품 사용 전 제조사가 제공하는 해당 제품의 사용 방법 설명서 확인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안전대'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 (O P S) 안전대 착용 가이드
- (동영상) 보호구 착용 매뉴얼
- (스티커) 보호구 착용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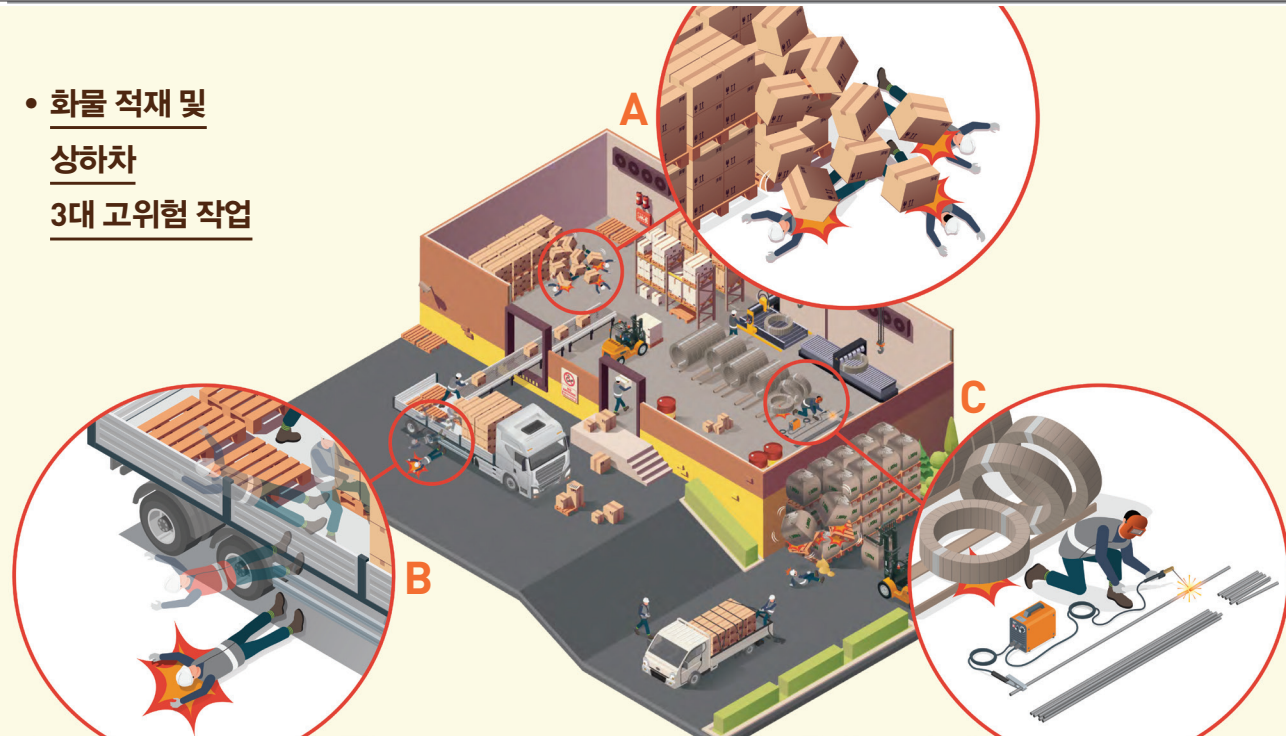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전대'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적재·상하차 안전작업 가이드

제공 언어 (17개)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라오스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 화물 적재 및 상하차 3대 고위험 작업



위험 요인	예방조치
A 화물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의 편중을 방지하고 균형을 맞춰 적정 높이로 적재 화물 적재 시 팔레트 등을 사용하고 단위 화물별로 묶음 고정
B 적재된 제품 또는 화물 적재할 위에 올라서서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적재함에 오르내리기 위한 구조물(사다리, 디딤대 등) 설치
C 매달아 올린 상태 또는 적재 상태의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물에 적합한 줄걸이 기구 및 방법 사용 적재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적정 높이로 쌓은 후 단단히 고정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SNS 메시지로 '적재·상하차 안전작업 가이드'를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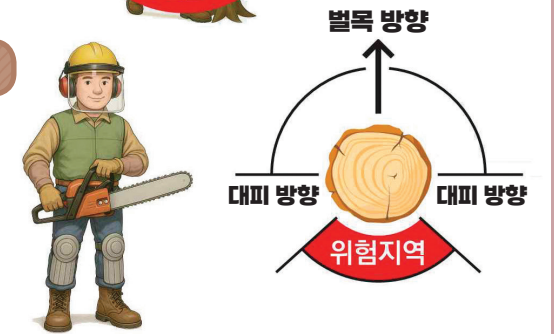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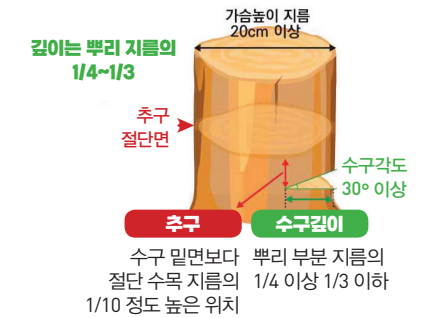
- 1 QR코드 스캔 > 2 이미지 클릭 >
- 3 필요한 언어로 제작된 이미지 선택 >
- 4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유

벌목작업 재해 예방 5대 안전수칙

제공 언어 (17개)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라오스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 5대 안전수칙

- 1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
 - 추구는 수구 밀면보다 절단 수목 지름의 1/10 정도 높게 만듭니다.
- 2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접근 금지
 - 안전거리(나무 높이 2배)를 지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 3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 걸려 있는 나무 밑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4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 위험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SNS 메시지로 '벌목작업 재해 예방 5대 안전수칙'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1 QR코드 스캔 > 2 이미지 클릭 >
- 3 필요한 언어로 제작된 이미지 선택 >
- 4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유

산업재해 통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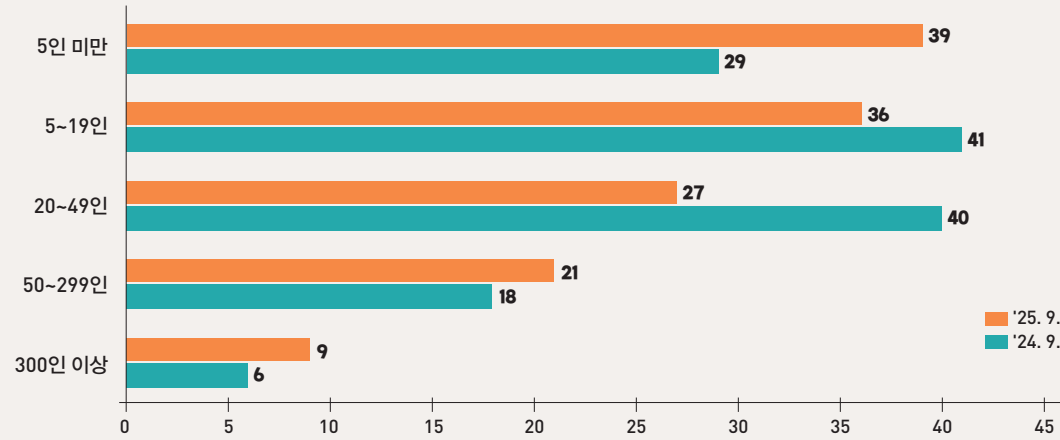
제조업 사고사망자 통계(2025년 9월 확정* 기준) * 2025. 12. 29. 고용노동부 발표

2025년 9월 기준 제조업 사고사망자 132명 발생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77.3%(102명) 발생

규모별 제조업
사고사망자 현황

(2024년 9월과
2025년 9월 기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고재해 현황

(2025년 9월 기준)

발생	사고재해자	사고사망자
계	12,107명	102명
끼임	3,559명	25명
넘어짐	1,663명	4명
절단·베임·찢림	1,600명	0명
떨어짐	1,285명	23명
물체에 맞음	1,190명	14명
부딪힘	1,149명	8명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481명	0명
깔림·뒤집힘	347명	16명
기타	833명	12명

* 기타: 폭발·파열, 화재, 감전, 화학물질 노출·접촉, 이상온도 접촉, 무너짐,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고재해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재해 사례

동력 전달문 사이에 끼임

작업을 마친 후 대형 동력문을 닫고 나오던 중 문 사이에 끼임



발생 원인

-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 전원 차단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부적절

예방대책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작업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2.5m 이내에 위급 또는 위험 상황 발생 시 문의 작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끼임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수동으로 문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치

재해 사례

판유리 운반 중 적재대에 충돌해 깨져 날아온 파편에 부상

재단된 판유리를 작업자 2명이 운반하던 중 유리가 적재대에 충돌하여 깨지면서 파편이 날아와 작업자 목 부위에 창상을 입힘



발생 원인

- 판유리(단위 중량 50kg) 취급 시 하역운반설비 미사용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지정

예방대책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 작업지휘자 지정, 해당 작업계획 내용을 작업자에게 주지·감독
- 깨지기 쉬운 중량물 취급 시 전용 설비(에어밸런스 등) 사용, 충돌로 인한 파손 방지(완충재 부착 등) 조치

산업재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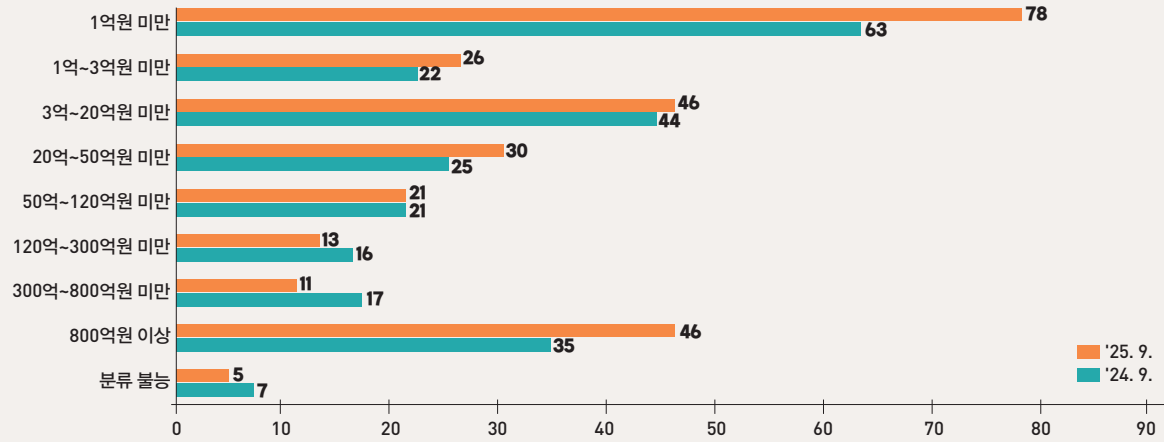
건설업

건설업 사고사망자 통계(2025년 9월 확정* 기준) * 2025. 12. 29. 고용노동부 발표

2025년 9월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 276명 발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65.2%(180명) 발생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현황
(2024년 9월과
2025년 9월 기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업 사업장
사고재해 현황
(2025년 9월 기준)

발생	사고재해자	사고사망자
계	9,671명	180명
떨어짐	3,153명	106명
넘어짐	1,506명	6명
절단·베임·찢림	1,300명	1명
물체에 맞음	1,027명	8명
부딪힘	853명	15명
끼임	737명	6명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363명	0명
깔림·뒤집힘	305명	14명
기타	427명	24명

* 기타: 폭발·파열, 화재, 감전, 화학물질 노출·접촉, 이상온도 접촉, 무너짐, 산소결핍,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고재해자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재해 사례

지반 침하로 아웃트리거가 이탈되면서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대에 자재를 싣고 운반하던 중 차량 전면부 좌측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떨어짐



발생 원인

- 고소작업대의 넘어짐 방지 조치 미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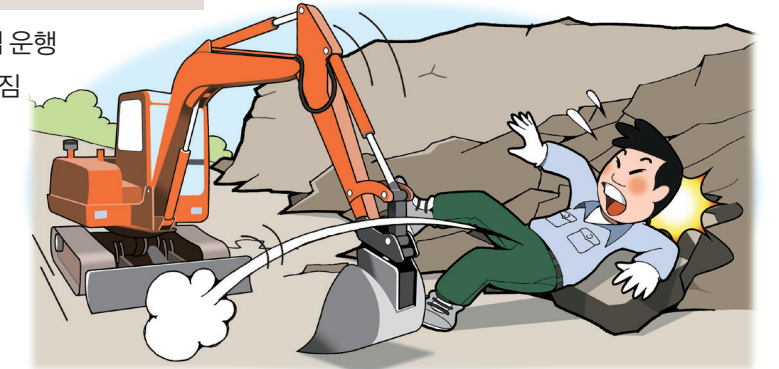
예방대책

- 작업 중 떨어짐 방지를 위해 작업대 모든 면(4면)에 안전난간 견고히 설치
- 고소작업대 넘어짐 방지 조치* 철저
* 충분한 설치 공간 확보 및 지반 사전조사, 아웃트리거를 정상 상태로 인출한 후 작동 작업대와 체결 등

재해 사례

석축 쌓기 작업 중 굴착기를 피하려다 넘어짐

석축 쌓기를 하던 작업자가 근접 운행 중이던 굴착기를 피하려다 넘어짐



발생 원인

- 부딪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미실시
- 개인보호구 미착용

예방대책

- 안전한 작업통로 설치
- 백호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시 부딪힘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자 배치 후 유도에 따라 작업 진행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무너진 콘크리트, 무거운 책임:

중소 시공사에 지워진 '안전의 무게'



글. 이현정_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1.8m, 삶과 죽음을 가른 치명적 높이

2022년 2월 26일 아침, 강원도 춘천의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공사 현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출입문의 높이를 30cm 높이기 위해 상부의 콘크리트 벽체를 철거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자극히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소함 속에 치명적인 위험이 웅크리고 있었다. A씨는 바퀴가 고정되지 않아 위태롭게 흔들리는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 259kg에 달하는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를 절단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조금씩 파쇄했어야 할 벽체를 통째로 잘라내는 순간, 떨어지는 콘크리트 덩어리의 반동으로 비계가 크게 밀려났고, 그 위에서 중심을 잃은 A씨는 1.8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인의 키 정도에 불과한 높이였지만,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추락의 결과는 참혹했다. 이 사고는 3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와 안전보건 시스템의 부재가 빚어낸 인재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공사 B사와 대표이사 C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엄중한 시선: 관리 없는 위임은 '방임'이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경영책임자가 깊어져야 할 법적 무게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은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상태였다. 259kg의 중량물을 다루는 고위험 작업임에도 사전에 위험성을 조사하거나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전무했으며, 현장소장은 노동자에게 구두로만 작업을 지시했을 뿐 안전모 착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계의 바퀴를 고정하도록 지시할

관리감독자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러한 현장의 안전조치 불이행이 단순한 실무자의 태만이 아니라,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형식적으로만 수립했을 뿐 실제로는 현장에 전파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현장소장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체계적인 작업계획서가 존재했다면 콘크리트를 통째로 절단하는 위험천만한 방식은 사전에 배제되었을 것이고, 이동식 비계에 필수적인 아웃트리거전도 방지용 지지대와 안전난간이 설치되었다면 낙하 충격에도 비계가 튕겨 나가는 것을 막거나 최소한 노동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경영책임자가 작업 안전평가 기준 마련 등의 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현장 관리자에 대한 통제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 완벽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웠다"는 C씨의 항변을 법원이 단호히 배척했다는 것이다. B사는 상시 노동자 20여 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재판 과정에서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가 규정한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했다.¹⁾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현실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C씨가 제출한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사고 발생 이전에 작성된 것처럼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고 후에 급조되거나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전까지 노동자들에게 해당 방침이 전파되거나 게시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출된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살펴보면, 참석자는 도급인인 B사의 임직원과 수급인 대표자들뿐이었다. 심지어 수급인 중 한 곳은 C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였고, 그 대표로 참석한 인물은 B사의 상무였다. 실질적인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는 생략된 채, 경영진과 특수관계인들이 모여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의견 청취'라고 포장한 것이다. 더욱 뼈아픈 점은 사고 발생 4개월 전, 안전보건공단이 해당 현장을 점검하며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과 아웃트리거를 설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C씨는 이 명확한 경고를 받고도 사고 당일까지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영세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외부 전문가가 지적한 구체적인 위험요인조차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시스템은 방대한 매뉴얼이 아니라, 자체 점검과 외부의 지적을 즉시 이행하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실질적인 행동' 그 자체인 것이다.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 3대 기초 안전수칙

이 사건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추락이었다는 점은, 우리 산업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지켜지지 않는 '3대 기초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착용을 3대 기초 안전수칙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계도와 점검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전국적인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이 세 가지 수칙의 준수 여부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²⁾ 안전모는 추락 시 머리에 가해지는 치명적인 충격을 흡수하여 뇌 손상을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이다. 안전대는 고소작업에서 노동자의 추락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생명줄이며, 지게차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벨트는 장비 전도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 장비에 깔리는 참사를 막아준다. A씨 역시 1.8m라는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추락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머리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

0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02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 12월 2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집중 점검 주간(현장 계도를 운영했다).

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0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2항, 제44조

0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3대 기초 안전수칙은 단순히 권장 사항이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생존의 조건이자 기업의 안전문화를 가능케 하는 척도다. 이러한 3대 기초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이 법적으로도 강력한 의무 규정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모 ³⁾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대 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벨트 ⁵⁾	앞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호구를 '지급'한 것만으로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주는 노동자가 실제로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진다. 노동자가 착용을 거부하거나 불편해한다고 방치했다면, 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3대 기초 안전수칙의 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 사안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정한 안전 리더십으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경영책임자들에게 서늘한 경고장을 보냈다. 사고 후에 급조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서류는 법원을 속일 수 없었고, 20명 남짓의 작은 회사라 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았다. 이제 경영책임자들은 '보여주기식' 안전관리와 결별해야 한다. 서류철 속에 잠들어 있는 안전 방침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매일 아침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안전모의 턱끈을 직접 당겨보며 확인하는 것, 위험한 작업 구간에는 반드시 추락 방지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다. 또한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기업의 타협 불가능한 핵심 기준으로 선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 법원은 묻고 있다. 당신의 안전 시스템은 서류 속에 있는가, 아니면 노동자의 생명줄에 연결되어 있는가?

바다의 우유, 굴: 겨울이 선사하는 활력의 정수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마지막 추위를 이겨낼 특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차가운 바다는 우리에게 가장 순수하고 응축된 형태의 활력을 선물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입니다. 미끄러지듯 입안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속살, 뒤이어 터져 나오는 바다의 풍미와 은은한 단맛. 굴은 단순한 해산물을 넘어, 겨울 바다가 길러낸 영양의 결정체이자 미식의 정점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도 기니마다 챙겨 먹으며 기력을 보충했고, 현대의 사랑꾼 카사노바가 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다는 굴. 이번 2월에는 서양의 황제와 귀족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겨울 밥상을 책임졌던 '완전식품' 굴이 품고 있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우리 몸을 깨우는 놀라운 효능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 김현학 iamfoodstylist 대표, 푸드 디렉터
한국식문화진흥원 원장

역사 속의 굴, 동서양을 매혹시킨 바다의 보물

인류가 굴을 섭취한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구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굴을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겼으며, 영국에서 공수한 굴을 신선하게 먹기 위해 해수로 채운 수조를 만들어 연회장까지 운반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한자리에서 175개의 굴을 먹어 치운 대식가로 유명했고, 프랑스의 대문호 발자크는 집필에 들어가기 전 굴 100여 개를 먹어 원기를 보충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양사에서 굴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활력과 창의성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굴 사랑 또한 이에 못지않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전은 그의 저서 <자산어보>에서 굴을 '석화(石花)'라 기록하며 "살이 희고 부드러우며, 날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으며, 국을 끓이거나 젓갈을 담가도 모두 맛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허균의 <도문대작>은 강원도 강릉의 굴을 최고로 꼽으며, 그 맛이 뛰어나 궁중에도 진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굴의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즐기는 것은 물론, 굴을 겨울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중요한 보양식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한려수도의 중심인 통영 앞바다는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 해역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굴 생산지입니다. 플랑크톤이 풍부한 바다의 영양을 가득 머금고 자란 통영 굴은, 과거에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진상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겨울이면 언제나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굴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은, 바다에 부표를 띄워 굴을 키우는 '수하식 양식법'의 발전 덕분입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자연산과 양식 굴의 차이

우리가 시장에서 만나는 굴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미식의 시작입니다.

- **석화(자연산 굴)** — 이름 그대로 '돌에 핀 꽃'처럼, 바닷가 바위에 붙어 자라는 자연산 굴입니다. 거친 파도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에 성장이 더디고, 크기는 작지만 조직이 매우 단단하고 쫄깃하며 향이 아주 진합니다. 바위의 미네랄과 해조류의 풍미를 응축하고 있어, 주로 껍데기째 굽거나 찌서 먹을 때 그 깊고 복합적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 **양식 굴(수하식 굴, 참굴)**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굴의 대부분은 양식 굴입니다. 조용한 바다에 밧줄을 내려 굴을 키우는 방식으로, 파도에 시달릴 필요 없이 플랑크톤을 충분히 섭취하며 자라서 알이 굵고 살이 통통하며 식감이 매우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성장 환경이 관리되어 위생적이며, 풍부한 영양을 자랑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국, 밥, 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카사노바의 사랑과 나폴레옹의 야망, 그 중심에 선 굴

굴의 효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희대의 사랑꾼 '카사노바'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18세기 유럽을 풍미했던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모험가인 자코모 카사노바는 자서전에서 "사랑의 만찬에는 언제나 굴이 올랐다"고 기록하며 굴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굴 50개를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단순히 미식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굴을 자신의 정력과 매력의 원천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굴에 압도적으로 풍부한 '아연(Zinc)'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과 생식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그의 굴 사랑이 결코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 역시 소문난 굴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도 신선한 굴을 공급받아 식사 때마다 챙겨 먹었다고 합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했던 그에게, 굴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굴에 풍부한 '타우린'과 '글리코겐'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럽을 정복하려 했던 그의 불타는 야망 뒤에는, 차가운 바다의 에너지를 품은 굴이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굴은 한 남자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고 한 시대의 영웅을 만든 비밀 병기였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천연 자양강장제, 굴의 놀라운 효능

굴은 단순한 미식 재료를 넘어, 현대인의 지친 몸을 깨우는 과학적인 성분들로 가득 찬 '먹는 보약'입니다.

'바다의 우유', 완전식품의 과학: 굴이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이유는 우유처럼 칼슘,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거의 모든 종류에 걸쳐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너지 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글리코겐(Glycogen)' 함량이 매우 높아, 섭취 시 우리 몸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최고의 피로 해소제, 타우린의 힘: 굴에 풍부하게 함유된 '타우린(Taurine)'은 에너지 음료의 주성분으로 널리 알려진 아미노산입니다. 타우린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무엇보다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잦은 회식과 과로로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피로물질인 젖산의 축적을 막아 만성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면역력과 활력의 핵심, 아연의 보고: 굴이 '천연 자양강장제'라 불리는 이유는 미네랄 '아연'의 함량이 다른 어떤 식품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굴 100g에는 성인 남성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구성하는 세포의 생성과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고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떨어진 기력과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굴만 한 것이 없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바다의 영양소: 굴에는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오메가-3 지방산(EPA, DHA)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Selenium)'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여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안전하게 굴 즐기기

겨울철 굴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로바이러스'와 '패류독소'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맛있게 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알고 대처하기: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전파됩니다. 특히 굴과 같은 조개류는 바닷물을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를 체내에 농축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몬즙이나 식초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며, 노로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사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가열입니다. 중심 온도 85°C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패류독소, 시기를 확인하기: 패류독소는 주로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3~6월)에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입니다. 마비,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굴은 수온이 차가운 늦가을부터 겨울(11~2월)까지가 가장 안전하고 맛있는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전문가의 팁

신선한 굴 구입: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판매하는, 포장에 생산 이력이 명확히 표기된 신선한 굴을 사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꼼꼼한 세척: 껍데기를 깬 생굴이라도 반드시 흐르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꼼꼼하게 씻어 불순물과 껍데기 조각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차오염 방지: 굴을 손질한 칼과 도마는 다른 식재료에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세제로 깨끗하게 씻어 교차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바다의 영양을 품은 한 그릇: 굴술밥 레시피

겨울의 끝자락, 바다의 영양을 통째로 담아낸 '굴술밥'으로 가족의 기력을 보충해 주세요. 뚜껑을 여는 순간 피어오르는 바다 내음과 구수한 밥 냄새, 탱글탱글한 굴과 달콤한 밤, 대추가 어우러져 그 어떤 보양식도 부럽지 않은 완벽한 한 끼를 선사합니다.

재료(3~4인분 기준) —

- 주재료: 쌀 2컵, 생굴 300g, 깐 밤 10알, 대추 5알, 표고버섯 3개
- 밥물: 다시마 우린 물 2컵, 청주 1큰술
- 양념장: 진간장 4큰술, 다진 파 2큰술, 다진 마늘 1/2큰술, 고춧가루 1작은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만드는 법 —

1. **재료 준비:** 쌀은 깨끗이 씻어 30분 이상 불린 뒤 체에 밭쳐 물기를 빼둡니다. 생굴은 연한 소금물에 가볍게 흔들어 씻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밤은 2~4등분을 하고, 대추는 씨를 빼고 채 썰며, 표고버섯은 기둥을 떼고 슬라이스합니다.
2. **밥 안치기:** 솥이나 두꺼운 냄비에 불린 쌀을 안치고, 다시마 우린 물과 청주를 부어 밥물을 맞춥니다.
3. 준비한 밤, 대추, 표고버섯을 쌀 위에 보기 좋게 올립니다.
4. 뚜껑을 덮고 중불에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밥물이 끓어오르며 김이 나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 10분간 더 끓여줍니다.
5. **굴 올리기:** 10분 뒤 뚜껑을 열어 손질해둔 굴을 밥 위에 소복이 올립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가장 약한 불에서 5분간 뜸을 들인 뒤 불을 끕니다. 불을 끈 상태로 5분간 더 뜸을 들입니다.
6. **양념장 만들기:** 밥이 되는 동안 준비한 재료를 모두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7. 솥의 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굴이 으깨지지 않도록 살살 섞어 그릇에 담아낸 뒤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먹습니다.



TIP —

- * 굴을 처음부터 넣고 밥을 지으면 질겨지고 맛이 빠져 나갑니다. 반드시 뜸 들이는 마지막 단계에 넣어 굴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풍미를 살리는 것이 전문가의 비법입니다.
- * 솥 바닥에 늘어붙은 누룽지는 그냥 긁어 먹어도 맛있지만 뜨거운 물을 부어 구수한 송농으로 즐기면 식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2026년 비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을 목표로 제조·서비스 등 비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 개정에 따라,
 - 건설업 외 300명 미만 사업장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설
- 건설업 외 업종 실무경력 5년 이상의 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교육
 - 교육 수료 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비건설업 사업장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edu.kosha.or.kr)
 ※ 자세한 사항은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edu.kosha.or.kr) 내 [안전보건공단교육 → 전문화교육 → 공지사항] 확인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실시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작업환경측정기관의 분석 능력 향상 및 측정 결과의 정확성·정밀성 확보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실시

- 이 정도관리는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 수준을 점검
 - 측정기관 간 분석 능력의 편차 완화 및 자율적인 품질관리 역량 강화
- 특별정도관리 및 정기정도관리 대상 기관 구분 운영
 - (특별) 신규 참여 기관, 2회 연속 동일 분야 부적합 기관
 - (정기) 특별정도관리 대상 제외 모든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원 방법: 온라인 접수(k2b.kosha.or.kr)
 ※ 자세한 사항은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내 [전문사업 → 정도관리 → 작업환경측정기관 → 공지사항] 확인

국제

독일 사례로 본 교대근무자 건강 관리

독일

야간·교대근무로 건강 위험이 커지는 노동자, 생활습관 개선 통한 건강 관리 필요

- 독일 내 교대근무자는 약 300만명으로, 전체 직업군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 이들 가운데 약 32.2%는 수면장애, 약 14%는 심혈관·대사질환 등 만성질환 위험이 큼
- 독일 산업재해보험공단(DGUV)은 교대근무자의 일상 관리와 작업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 관리 가이드 제시

<건강 관리 가이드>

- (수면 관리)
 - 취침 전 양치, 독서, 음악 감상 등 일정한 루틴 유지
 - 과도한 공복이나 취침 직전 과식 지양
 - 취침 전 조도 저감 및 청색광 최소화
- (운동 및 신체 활동)
 - 근무시간 외 걷기, 계단 이용 등 일상 속 운동 실천
 - 취침 전 격렬한 운동 지양
 - 출퇴근 시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 (스트레스 관리 및 휴식)
 - 일상 계획 수립을 통해 휴식과 개인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
 - 이완 호흡, 근육 이완 등 이완 기법을 활용해 긴장 완화
- (중독성 물질 관리)
 - 카페인·니코틴·알코올 등 중독성 물질 섭취 및 사용 제한
 - 디지털 기기 사용 최소화

<시사점>

- 교대근무자는 수면장애와 심혈관·대사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수면 주기 교란을 최소화하는 근무표 설계 필요
- 조도·소음 저감, 휴게공간 등 생체리듬을 보조하는 작업환경 개선 요구
- 영양·운동·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습관 교육 강화를 통한 개인 회복력과 건강 개선 중요

출처
 DGUV(2025) - 'Leben mit Schichtarbeit' Tipps für Beschäftigte

나에게 맞는 이달의 힐링 장소

2월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관광축제가 속속 개최된다. 각 지역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놓치지 말자!

• 겨울공주 군밤축제

공주시의 대표 특산품인 공주알밤을 활용한 중부권 대표 겨울 축제로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개최된다. 지름 2m의 대형 화로에 밤을 직접 구워 먹는 '대형화로체험', 공주 지역 농축산물을 그릴에 구워 맛보는 '공주 군밤 그릴존'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겨울공주 댕댕왕국', 눈썰매 등을 즐길 수 있는 '겨울공주 눈꽃왕국' 등 체험 프로그램과 군밤장수로 변신한 마술사와 연기자, 관광객과 즉흥 공연을 하는 '군밤장수를 찾아라!', 게임 승리자에게 선물을 주는 '불타는 군밤타임' 등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간: 2026년 2월 4일 ~ 8일 **장소:**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68(신관동) 금강신관공원 및 미르섬

• 대관령 눈꽃축제

1993년 시작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겨울 축제이다. 올해 테마는 '동계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다. 2018 평창 올림픽을 보고 동계 스포츠 국가대표를 꿈꾸던 평창의 마스코트 '눈동이'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국가대표로 거듭나는 과정을 초대형 눈조각과 얼음조각으로 생생하게 표현한다. 눈동이의 성장 여정을 따라 펼쳐지는 다이내믹한 동계 스포츠 체험존도 준비된다. 커다랗고 다양한 눈조각들과 길이 100미터가 넘는 눈 터널 등이 감탄을 자아낸다. 눈꽃썰매를 타고 눈놀이와 얼음 놀이도 할 수 있다.

기간: 2026년 2월 13일 ~ 22일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로 135-9 송천 일원

• 태백산 눈축제

태백산의 아름다운 겨울 자연을 배경으로 '2026 REAL 태백산 눈축제'를 주제로 펼쳐진다. 대표 프로그램은 대형 눈조각 전시다. 병오년 '말의 해'를 상징하는 대형 말 눈조각을 비롯해 12간지를 형상화한 작품, 해학과 미소를 담은 하회탈 눈조각, 천성대 등 문화유산을 표현한 작품들이 설치된다. 백패킹, 미니 동계 올림픽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등도 준비된다. 태백산 전국눈꽃등반대회,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도 열린다.

기간: 2026년 1월 31일 ~ 2월 8일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180 태백산국립공원 일원

• 평창 송어축제

오대천에서 싱싱한 송어를 직접 낚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다. 축제장은 얼음낚시터, 텐트 낚시 전용 구역,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광장으로 구성된다. 텐트 낚시는 하루 수용 인원이 제한되므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한다. 일반 얼음낚시권과 눈썰매, 스노 래프팅 등 놀이시설 이용권은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직접 잡은 송어는 축제장에 마련된 회·구이 센터에서 손질비를 내고 요리해 맛볼 수 있고, 2마리까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

기간: 2026년 1월 9일 ~ 2월 9일 **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평창송어축제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만드는 복지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응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대기업의 협력사 복지사업 지출비용
50% 범위 내
(매년 최대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
100% 범위 내
(최대 5년간 2억~20억원 한도 규모별)



상담문의

• 기금 설립 운용

고용노동부 (1350)

• 지원금

근로복지공단 (052-704-7332, 730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만의 안전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찾습니다.

대상

전국의 모든 사업장

분야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 관리자와 노동자가 서로 응원하며
안전일터를 만듭니다.

일터 이야기

: 특색 있는 안전 노하우 등
해당 사업장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Q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